

지역 소식통

고창, '신활력·소상공인 경제 아카데미' 성황리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치호)와 고창군이 최근 군민과 함께하는 제2회 신활력·소상공인 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소상공인, 기업인,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청년창업에 관한 강연, 관내 기업제품 소개 등 경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은 국내 대표적인 창업전문가이며, 창업컨설팅 경력만 25년이 넘는 '창업의 신' 이흥구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소장의 '청년창업 노하우'를 주제로 이뤄졌다. 이흥구 소장은 첫째로 성공 창업을 위한 자기점검과 필수적인 내적, 외적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는 창업마인드를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샘골공원 개장

정읍시민을 위한 새로운 쉼터인 샘골공원이 최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샘골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염영선·임승식 도의원, 고경운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 관계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샘골공원은 2021년 5월 미세 먼지 저감숲을 시작으로 착공해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성됐다. 2.7ha의 넓은 면적에 1.8km의 산책로, 다양한 운동기구, 분수대, 물수레, 퍼즐터, 어린이 놀이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한다.

샘골공원은 수성동 생활권에 위치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어디서나 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시설물과 수목 배치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야로 공원이 한눈에 들어와 시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2주년 맞아... “시민 위한 혁신과 적극행정 멈추지 않겠다” 강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읍시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민선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시정을 이끌어온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민선 8기가 반월점을 돌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의 성과로 △정읍형 공공배달앱 성공적 정착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 발행으로 지역상권 소비 촉진 △59개월 이하 영유아에 대해 10만원 육아수당 지급 △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대상포진·폐렴구균 무료접종 지원 △동학농민혁명 세계사적 위상 제고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 바이오규제혁신센터 유치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평가 매년 최우수 시군 선정 △(우)호연포포미 등 14개 기업 유치로 300여개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민선8기 전반기 2년이 지나고, 앞으로의 2년은 정읍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추진할 핵심사업도 설명했다. 주요 과제는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체육도시 △따뜻함이 고르게 퍼지는 따뜻한 안심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도시 △청년들이 꿈 꾸고 꿈이 현실이 되는 교육도시 △365일 소통하는 열린도시다. 이 시장은 먼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샘고를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농축산물 미생물 소재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기능성 펩티드 산업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먹거리 산업에 앞장서겠다”며 “바이오 산업에 압도적인 연구 인프라를 갖춘 강점을 앞세워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00실 이내의 첨단바이오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해 첨단산업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착실히 추진해온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어린이 전용병동을 갖춘 소아외래진료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분만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보육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늘 그대왔듯 우리 시민들을 위해 혁신과 적극행정을 멈추지 않겠다”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정읍 발전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해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 내년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고창·부안,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 이학영 부의장 등 만나 지원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했다. 심 군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이날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만나 내년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특히 지역역원인 노을대교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총사업비 증액 건과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임에도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창 등 5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건의와 고창어민 삶의 터전인 지주식 김양식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부처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재부와 국회단체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근택 의원과 고창출신 이성운·안규백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에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설득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활 속 고충 민원 해결

‘샘고을시장으로 찾아가는 고충민원실’ 운영

정읍시는 최근 샘고을시장 내 상인 교육장에서 찾아가는 고충민원실’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찾아가는 고충민원실’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고령이거나 혼자 장사를 하고 있어 불편사항이 있어도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샘고을시장 내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

했다. 이날 고충민원실에서는 샘고을시장 내 비가림시설 등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요구와 시장 내 도로의 주차문제, 인도 보도블럭 교체요구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 시장 상인들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샘고을시장상인회 이흥구 회장은 영세한 시장상인들의 세금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찾

아가는 세무신고의 날’을 운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감사과에서 이 민원에 대해 정읍세무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담장을 찾아오신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며 “시장상인들의 높은 호응에 앞으로도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충민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강화

부안군은 하절기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부안군은 어르신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내 등록경로당에 여름철 지원하는 한시적 냉방비를 기존 33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해

3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했으며, 폭염에 대비하여 경로당 냉방기 작동 여부, 화재사고 대책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을 위해 여름용 안전조끼를 지급했으며,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근무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을 한다.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홀몸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37명이 돌봄 대상자 2,100여명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행동요령 수칙 안내 및 폭염 발효시 신속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하절기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이원택·이정현 의원 등과 만나 지원 요청

권익현 부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과 유동수·김윤덕·이기현·오세희·조배숙·이정현 의원 등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군의 주요 현안사업은 격포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격포항~군항 해양 탐방로 조성,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위도 깊은

금 지하수 저류탱 설치사업,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등 10건이다. 특히 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낚시시설, 물놀이시설, 해수풀장, 캠핑장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낚시테마 체험형 복합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 유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며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에 적극 대응해 군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